



전북대병원, 사랑의 열매 대상 '나눔장' 수상

전북대학교병원이 '2025년 제12회 사랑의 열매 대상'에서 기부 부문 '나눔장'을 수상했다. 병원은 꾸준한 의료지원과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랑의 열매 대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나눔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게 수여된다. 전북대병원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해온 점,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병원은 특히 국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 나누는 난방매트 지원사업, 따뜻한 사랑의愛心지 나눔 행사 등 기부·복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 의료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체육회, 건강증진 협약 체결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은 최근, 남원시 체육회와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전문 지도자·강사 교류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지관은 2026년 1월 참여자를 모집하고 2월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관은 체육회의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더욱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프로그램 접근성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춘향골농협, 주거환경개선 봉사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춘향골농협(조합장 김영규)은 최근,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이진구)와 협력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재능기부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 관내 취약계층 3가구를 방문해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남원보호관찰소는 매년 취약 농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어오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원 혜택을 받은 어르신은 "새롭게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행정복지센터 등, 연탄 1000장 전달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자남)와 남원중앙교회(담임목사 정종승)는 지난 28일, 연탄 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3세대를 방문하여 연탄 1,000장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번 나눔은 남원중앙교회가 추운 겨울 연탄 난방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생계와 건강 문제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종승 담임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동암고 졸업생들 '한자리에'

'2025 동암인의 밤' 성료... 제11~12대 동문회장 이취임식
김윤덕 국토부장관 등 3명 '올해 자랑스런 동암인 상' 수상

전주 동암고 졸업생 모임인 '2025 동암인의 밤'이 지난달 28일 오후 전주시 평화동 알펜시아웨딩홀에서 양복 규 이사장과 동문 및 학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문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동암인들이 하나로 뭉쳐 많은 바 자리에서 국가와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3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동암인의 밤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및 김형두 한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김명준 포스코이앤씨 서부사업단 단장,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이날 동암인 밤 행사에서는 '올해 자랑스런 동암인 상'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김형두 한법재판소 재판관, 전주 통증의학과 이재훈 원장이 영예의 수상자로 올라 자리를 더욱 빛냈다.

또한 자랑스런 동암인 상을 수상한 김윤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동암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동문발전에 고생한

과 동문회를 이끌어주신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황종석 제11대 동문회장의 이임식과 이지원 12대 동문회장 취임식이 함께 진행됐다. 황 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동문과 학교 관계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동문회장에서 물러났지만 12대 동문회장의 활약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동문발전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12대 동문회장에 취임한 이지원 회장은 "지금까지 고생하신 선배님과 후배들의 뜻을 받들어 1만7,000여 동문과 동문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평화지원센터, '장애인 내 작품·내 숨씨' 전시회

전주시보건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센터 1층 로비에서 지역사회 장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장애인 내 작품·내 숨씨 자랑하기' 전시회를 개최했다. 평화동은 총 442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지적·뇌병변 장애인이 절반 이상(51.6%)을 차지해 지속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센터는 △1:1 맞춤형 재활 운동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원예치료교실 △도자기 공예교실 △작업치료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예치료 교실의 테라리움·미니화분, 작업치료교실의 수공예 작품·생활용품, 도자기 공예교실의 생활자기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재활 운동과 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자리로, 참여자들의 자신감 회복과 지역사회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권희성 기자

전북대 스포츠과학과 '동문 네트워크의 시대' 공식 출범

'전북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동문회'가 공식 발대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김상현 학과장을 비롯한 학과 교수 및 재학생, 졸업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서는 이병영 동문(2000학번)을 초대 동문회장으로 선출하고, 앞으로 동문 정기 교류 행사와 재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산업계에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도 공유됐다. 특히 전북대 스포츠과학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한故김무영 명예교수를 기리는 추모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이 밖에도 만찬과 친교의 자리가 이어져 선후배 및 교수진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이병영 초대 동문회 회장은 "동문회 출범은 스포츠과학과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감동을 안겼다."



첫걸음"이라며 "학과 발전과 후배 양성, 지역 스포츠산업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장애인복지관, 찾아가 개관 20주년 행사 진행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용)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마을과 함께하는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를 무주군 무주읍 서면마을과 부남면 유령마을에서 각각 진행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 주민에게 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알리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지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서면마을과 유령마을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체험과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한 노래자랑은 지역 간 화합과 공동체 정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복지정보 상담, 커피 나눔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 중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호응이 높았으며, 장애인·비장애인 주민 간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서남상공회의소, 기업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실시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홍필)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기업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실시했다. 산업시찰은 산업현장에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근무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기업 견학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매년 상공회의소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정은 '오리온 제주 음양수'와 '제주첨단과화기술단지 시찰'과 함께 지역 일대를 돌아보고 오는 2박 3일 일정으로, 근로자들에게 서로 친목을 다지는 좋은 시간도 가졌다. 최홍필 회장은 "그동안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해준 근로자들에게 감사하며, 각 기업체에서 모범근로자로 선정된 만큼 자부심을 갖고, 산업시찰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덕치면 주민 자녀 안형숙 선수, 도쿄 불링 개인전 금메달

덕치면 주민 자녀 안형숙(55·강원장애인불링협회) 선수가 2025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5회 국제 데플립 여자 불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 덕치면의 큰 자랑이 됐다. 안형숙 선수는 덕치면 회문리 주민 박양태 여사와 故 안영운 님의 장녀로, 이번 금메달은 한국 선수단의 다섯 번째 금메달이자 한국 불링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안형숙 선수는 지난 20일 일본 도쿄 히가시야마토 그랜드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안젤리나 주코바(우크라이나)를 매치스코어 2-1(169-181, 218-172, 191-188)로 제압하며 생애 첫 데플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첫 매치를 내주며 위기를 맞았으나, 두 번째 매치에서 3연속 스트라이크로 흐름을 잡았고, 마지막 매치에서는 차분한 경기 운영으로 역전 승리를 일궈냈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 안부살림 우편서비스 올해 사업 종료

남원시는 1인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 확인을 위해 운영해 온 안부살림 우편서비스 '안심하이' 사업 올해 사업을 11월 27일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추진한 우편서비스는 집배원이 고립가구에 생필품을 다면 배송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단순한 생필품 전달을 넘어 지역 돌봄 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일국제종묘, 김장철 맞아 배추 1500포기 기부

김제시는 대일국제종묘(대표 이태송)가 28일 김장철을 맞아 직접 재배한 배추 1,500포기를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기부된 배추는 2025년 국제종자박람회 기부행사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14개 기관에 전달되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 김장 김치 나눔 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일국제종묘는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분사를 두고 있는 채소종자 전문기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읍 무주반딧불신협, 겨울철 생활물품 기탁

무주반딧불신협이 지난 27일 무주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정진화)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활 물품(구스 이불 18세트, 화장지 20세트 / 2백50만 원 상당)을 전달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지대신 무주반딧불신협 이사장은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힘든 이웃들이 따뜻한 자발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물품들로 준비했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반딧불신협은 2016년부터 무주읍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경로당 등 지역 기관·단체에 후원을 지속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